

# 네 가지 시선이 묻는다 '당신에게 자연이란'

자연으로 향하는 삶  
이소영 외 3인 지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내 조카는, 현재의 어린이들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자연을 경험하지?' 물론 자연을 공부하기보다 코딩을 공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전보다 자연을 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류는 자연에 더 기댄다."

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이소영 식물학 일러스트레이터(식물세밀화가)는 "우리는 자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많은 값어치를 들여 자연을 찾고 있다"며 "나 역시 도시에 살며, 어릴 적 주변 어른들로부터 받은 자연 경험을 현재의 어린이들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는 부채감을 안고 있을 뿐이다"고 밝힌다.

신간 '자연으로 향하는 삶'은 환경·생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 4명의 생태에세이를 모았다. 한편으로 묶지 않고 '식물을 연구하는 태도'(이소영 식물학 일러스트레이터)와 '새를 그리는 사람'(이우만 조류 세밀화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최원정 작가), '그렇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희복 작가) 등 78쪽의 낱말로 분절했다. 하나의 제목 아래 네 가지 시선으로 바라본 자연 이야기를 담았다. 이는 "자연 속 생명체처럼 각각의 생각과 글이 섞을 수 없이 고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4명의 작가들은 자연에서 영감과 용기를 얻고, 도시화된 삶에서 자연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숲 자락에 자리한 이우만 조류 세밀화가의 작업실은 '마을에선 끝집, 숲에선 첫 집'이다. 생태에세이에 들어갈 풀과 나무, 곤충들을 그리며 자연 속 생명체들에 관

심을 갖게 된 작가는 '깃털이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눈빛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청둥오리를 필드 스코프로 관찰하며 조류들에게 매료됐다. 또한 새를 관찰하고 그리는 방식에 대해 문화다양성이라는 면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어새가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연환경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듯 내 그림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다양한 문화적 토양도 함께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잡지 기자와 방송작가로 일한 최원정 작가는 '정소기 대신 갈대 빛자루 사용하기', '내 삶에서 가전제품 빼기' 등 생활 속 실천에 대해 들려준다. 그리고 '딱따구리 보전회' 활동을 하는 작가는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자연의 변화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이치를 헤아려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생명에 대한 감정이입 능력이 풍부해진다. 그런 정서를 바탕으로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연대해 공동의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생태 감수성이 아닐까?"

광주동물원단체 '성남비전'을 운영하는 희복 작가는 2021년 가을부터 광주·전남 지역의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를 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새들의 숫자 또한 비인간(새)의 생명이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 '마리'



활짝 핀 벚꽃 가지에 앉아 꿀을 탐하고 있는 텃새 직박구리. /연합뉴스

보다 '명'(命)을 사용한다. 2018년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조사에 따르면 연간 800만 명(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유리창과 투명방음벽과 충돌해 죽고 있다. 작가는 아파트 단지 등지의 투명한 방음벽에 전혀 효과 없는 맹금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인간중심적인 사고의 폐해'라고 지적한다.

"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확인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새들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생태계 균형도 깨진다. 그리고 그 영향은 인간에게 돌아온다."

자연에 대하는 작가 4명의 관점과 태도는 다르면서도 닮은 꼴이다. 작가들이 독자들에게 보내는 자연과 삶에 대한 메시지는 긴 여운을 남긴다. 작가들이 야외 조사에 나설 때 가방에 챙기는 물건 목록 또한 눈길을 끈다. <가자>3만2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그렇게 걸작은 만들어진다(툼 헝크스 지음, 홍지로 옮김)= '포레스트 검프', '필라델피아'의 배우. 영화계의 전설 톰 헝크스가 쓴 첫 장편소설. 슈퍼히어로 블록버스터 영화 시리즈의 감독 빌 존슨을 통해 관객들은 몰랐던 '진짜' 영화제작 이야기를 들려준다. 빌 존슨은 이 영화를 반드시 흥행시켜야 하지만, 각본은 한 줄도 쓰지 못했고 촬영지 선정도 배우 캐스팅도 난관은 한두개가 아니다. 영화는 과연 무사히 완성될 수 있을까? <리드비>1만9800원

▲매미 돌아오다(사쿠라다 도모야 지음, 구수영 옮김)=일본 추리작가 협회상 '본격 미스터리' 대상 수상작. '추리 단편의 고수' 사쿠라다 도모야 작가가 엮어낸 미스터리 단편집. 책은 전국을 방랑하며 곤충을 관찰하는 아마추어 탐정 에리사와 센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담았다. 지진이 지나간 자리에서 유령을 마주치고, 무관해 보이는 사건 속에서 연결점을 찾아내고?. 무심코 지나친 진실을 찾아내는 따뜻한 미스터리. <내 친구의 서재>1만6800원

▲삶의 실력, 장자(최진석 지음)=동양철학의 석학 최진석이 명쾌하게 풀어쓴 장자의 철학. 대개 장자는 유유자적 대충대충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사실 장자는 세상에 틀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내면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 현명한 삶을 살라고 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자의 면모를 조명한 최진석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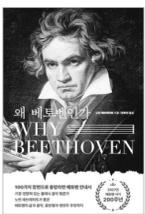
설서. 고전 '장자'가 불확실의 시대 불안에 휩싸인 독자들에게 건네는 조언. <위즈덤하우스>1만9800원

▲모든 게 처음인 브랜드의 무기들(초인 윤진호 지음)=매일같이 생겨나는 작은 기업, 1인 기업. 살아남는 기업은 '브랜딩'이 다르다. 대부분의 창업자가 자신을 단순 자영업자로, 셀러로, 프리랜서로 정의하지만 브랜딩은 회사가 커지고 난 후의 숙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필요한 전략이다. 작은 기업은 고객에게 스토리를 팔아야 살아남는다는 사실. CJ ENM, 월트 디즈니에서 경력을 쌓은 마케터 초인이 알려주는 실천 노하우. <갈매나무>1만9000원

# 아인슈타인·프로이트로 본 베토벤 '100가지 장면'

왜 베토벤인가

노먼 레브레히트 지음 장호연 옮김



작곡가에게는 치명적인 청력 상실 후에도 슬한 명작들을 쏟아낸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위대한 음악가다. 평론가 노먼 레브레히트는 "이전의 어떤 음악가보다도 인간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든 베토벤은 운명에 굴하지 않았고 놀라우리만치 독립적이었으며 교회와 국가에 고개 숙이지 않았다. 그는 매일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었고, 비평가와 팬을 똑같이 경멸했다"고 적었다.

베토벤에 관한 책은 국내외에서 수도 없이 출간돼 이젠 식상하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노먼 레브레히트의 책이라면 다르다. 세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클래식 평론가 중 한명인 그는 지금도 자신이 운영하는 클래식 음악 블로그(slippedisc.com)를 통해 세계 클래식 팬들

의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는 클래식 저자는 물론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이들의 노래'로 휘트브레드 상을 수상한 소설가이기도 하다.

'거장 신화', '왜 말라인가' 등을 펴낸 그의 신작 '왜 베토벤인가'는 베토벤의 삶에서 100가지 장면을 골라 역사적 사실과 그의 작품을 소개하고, 연주자 이야기, 추천 음반까지 아우른 '베토벤 안내서'다.

코로나 기간 동안 늘 베토벤과 함께했던 그는 "역병을 겪으면서 베토벤이 우리를 깨움어본다는 걸 한 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며 "베토벤이라는 사람과 그의 음악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는 나에게 새로운 충격을 던져준다. 그 다음 번에도. 또 그 다음 번에도"라고 적었다.

저자는 작품을 논할 때 형식과 가사를 분석하기보다 프로이트, 카프카, 아인슈타인에 의지해 베토벤의 음악과 사상을 다채롭게 해석한다.

100가지 장면 속에는 음악사에서 최고로 유명한 네 개의 음이 등장하는 교향곡 '운명' 1악장, 피아노 소품곡 '엘리제를 위하여' 등 많이 알려진 곡부터 현악 4중

주를 비롯해 잘 알려지지 않은 실내악곡까지 다양한 음악이 등장한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40년간 음악평론가로 활동하며 만난 연주자와 지휘자들에게 대한 일화와 음악 평이다. 쿠르트 마주어의 뉴욕필하모니와 바이올리니스트 아네 조피 무터가 만난 '로망스 2번'에 대해 "로망스가 아니라 수준 낮고 시시껄렁한 커피 수다"라고 거리낌이 말하는 그는 논의 할 가치가 있는 1000장의 음반을 골라 20세기부터 21세기에 걸쳐 활동한 예술가들을 소개한다. 빈필하모니오케스트라, 카네기홀이 연주한 베토벤 곡 순위와 곡 선정과 관련된 사이다 레를 등 거장의 이야기를 만나는 '톱 오브 더 팝스' 장면에서는 흥미로운 통계를 만난다.

클래식 서적을 여러 권 옮긴 장호연 번역가는 "베토벤과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정치, 인종, 젠더, 미학, 예술가와 비평가의 윤리가 저자가 건드리지 않은 게 없다"고 말한다.

<에포크>2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대 특공대(장은영 지음, 인디고 그림)=아버지를 잃고 조선시대 광대가 된 열두살 소년 바우. 어느날 왜적이 조선을 침범하자 광대들에게도 출정 명령이 떨어지는데. 장구나 치고 줄이나 타던 그들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을까? 광대들의 숨겨진 임무는 무엇일까. 조선시대 광대들의 삶과 활약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바우의 성장기. <보랏빛소어린>1만5000원

호호당의 비밀을 찾아 몰래온 사람들이 산을 훼손하자, 산냥이는 산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한걸음씩 성장해가는 산냥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창비>1만1000원

▲호호당 산냥이(박보영 지음, 김민우 그림)=말쭉꾸러기 고양이 산냥이는 산군 호호할멈과 신비한 약초가 가득한 호약산과 약방 호호당에 산다. 힘도 세고 영민하지만 언제나 실수투성이의 산냥이. 어느날

▲진실 탐정이 되자(탐 하포드 지음, 올리만 그림, 정아영 옮김)= "코로나 백신에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들어갔다.", "산불이 정체불명의 특정 세력에 의한 것이다." "쏟아지는 가짜뉴스와 무분별한 콘텐츠 속에서 진실을 찾는 방법! 세계적인 경제학자 탐 하포드와 함께 진실탐정이 돼 알쏭달쏭 복잡한 세상에서 숨겨진 진실을 찾아보자. <롤러코스터>1만5800원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